민족문화연구 '색채 은유의 통시적 탐색' 특집의 말

이번 특집에는 '한국어 은유 표현의 통시적 탐색'을 주제로 활동해 온, 포니정 재단 지원 학술 세미나의 성과 가운데 색채 은유를 다룬 세 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그동안 은유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공시적 분석에 집중되었고, 은유의 개념화 양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통시적으로 조망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어학, 중국학, 사전학, 텍스트언어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의 역사적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세우고 자료를 직접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가운데 '색채'를 근원 영역으로 삼은 세 편의 논의를 한자리에 모았다.

세 논문은 각각 한국 현대문학의 '회색', 중국어의 '綠', 한국 대중가요의 '붉다·빨갛다'를 대상으로 삼아, 대상 언어와 텍스트 장르를 달리한다. 그러나 개념 은유 이론을 분석 틀로 삼아 색채어가 구체적인 시각 경험에서 출발하여 추상적인 상징 의미로 사상되는 경로를 통시적으로 추적한다는 방법론을 공유한다. 이는 색채어의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결합하는 공기어와 담화 맥락, 그리고 시대적 조건 속에서 유동적으로 형성·확장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세 편의 논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고명주의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회색'의 은유 체계와 시대적 변화 고찰"에서는 1930년대 이후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회색 계열 표현이 어떻게 시대적 감각과 주체의 내면을 형상화해 왔는지를 살폈다. 흰색과 검은색 사이의 무채색인 회색이 지니는 중간성·불확정성·침체의 속성에 주목하여, 1930-1950년대의 회색은 식민지 근대의 권태와 전후 상실을, 1960-1970년대의 회색은 이념적 중간성과 산업화의 균열을, 1980-1990년대의 회색은 권력의 내면화와 침묵의 정서를, 2000년대 이후의 회색은 감각의 마모와 생존의 불투명성을 표상함을 밝혔다. 또한 회색 은유가 공간을 물들이는 색, 존재를 탈색시키는 색, 그리고 언어와 인식의 불확정성을 드러내는 색으로 전이되는 세 층위의 의미 구조를 제시하면서, 회색이 단순한 우울의 표지가 아

니라 역사·사회·주체·언어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복합적 색채 은유임을 논증하였다.

장선우의 "중국어 관용 표현에 나타난 '綠(녹)'의 은유 의미 분석"에서는 중국어 색채어 '綠'의 은유적 의미와 그 확장 과정을 두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현대한어사전』 역대 판본에 수록된 '綠' 관련 어휘를 개념 은유 이론으로 검토하여 '자연/식물, 안전/통과, 낮은 지위, 쇠퇴/상실, 불안/분노'라는 다섯 가지 개념 은유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어 『중국 관용어 대전』·『중국 속담 대전』·『중국 헐후어 대전』에서 추출한 관용 표현을 원·명대, 청대, 근현대의 시대순으로 분석하여,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綠'이 어떻게 은유 의미를 획득하고 공고히 했는지를 추적하였다. 특히 '綠葉(녹잎)'이나 '綠磚(녹색 벽돌)'처럼 '綠' 자체만으로는 비유 의미를 도출할 수 없는 표현이 관용 표현 전체의 구조적 맥락 안에서만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을 밝혀, 색채어의 은유 의미가 어휘 목록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담화적 맥락을 통해 구조적으로 생성되고 전승됨을 규명하였다.

정주연의 "'붉다, 빨갛다'의 개념 은유와 상징 의미 연구—대중가요 노랫말을 대상으로—"에서는 193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약 100년에 걸친 대중가요 노랫말에 나타난 '붉다' 계열 색채어의 상징 의미를 개념 은유의 틀로 분석하고 그 변화 양상을 살폈다. 노랫말에서 수집한 231건의 용례를 근원 영역·목표 영역·개념 은유·함의로 구분하여 기술한 결과, '붉다, 빨갛다'는 '강도(intensity)'와 '생명력(vitality)'이라는 두 상위 목표 영역과 결합하며 의지, 정열, 사랑, 부끄러움, 유혹적 아름다움, 슬픔, 그리움 등으로 분기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기어 분석을 통해 두 색채어가 신체·자연물·인공물·추상물과 변별적으로 결합함을 관찰하고, '붉다'와 '빨갛다'의 상징 의미가 시대별로 실현되는 특징을 조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붉은색 은유가 압축성과 시적 일탈을 허용하는 노랫말이라는 담화 장르의 특성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상으로 특집에 수록된 세 편의 논문을 개괄하였다. 회색이 한국 현대문학에서 시대와 주체의 내면을 물들이는 양상, 녹색이 중국어 관용 표현에서

신분과 금기, 허가와 생태의 의미로 누적되는 양상, 붉은색이 대중가요 노랫말에서 강도와 생명력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통해, 색채어가 시대와 담화 맥락에 따라 그 상징 의미를 끊임없이 갱신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특집 논문은 색채 은유라는 하나의 주제를 서로 다른 언어와 텍스트에서 통시적으로 조명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어 은유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나아가 언어에 반영된 인간의 인지와 정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읽을거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관련 연구자들에게 널리 읽히기를 기대한다.